

· 의료 부문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승 희

2007년 미국 의학교육 학회(AAMC)는 'Health in the Balance'라는 대 주제 아래 워싱턴 D.C에서 6일간 진행되었다. 여기서 'Balance'란 균형, 조화, 연계, 일치를 의미하며, 각 발표자들은 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의 관련을 통해 의료계의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더불어 제시하였다고 본다.

첫째, 의사와 의과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Krugman 박사는 강의, 연구, 진료 등 끊임없이 주어지는 많은 업무들 틈에서 의사들은 업무와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역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의학 분야는 타 학문 분야와의 협조 및 조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했으나, 최근의

환경 변화는 의과대학과 인접 학문 분야(예: 간호학 등) 사이의 팀워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학생들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접 분야 학문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학 연구 분야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Cech 박사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연구 행태의 문제로서 진부한 연구주제나 결과가 뻔한 연구에 몰리거나 특정 연구진에게 연구비가 몰리는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전이(轉移) 연구를 담당하는 우수한 연구원 및 젊은 연구원을 육성하고, 위험 수준도 높지만 보상 수준도 높은 연구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항상,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오랫동안 저소득층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현재 많은 주 정부는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종,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는 있었지만, 환자 개개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의료인들은 현재까지 개발한 최적의 의료 기술과 환경을 언제나, 모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부문에 만연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의학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번 학회에서는 LCME(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공식 인증기관)의 의과대학 인가 기준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 부문의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교육 목표 및 내용의 구체화, 성과 중심의 평가, 전공의들의 교수 학습 훈련, 서비스 학습, 직업전문성 교육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의과대학들 역시 현재 인증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들도 개발되어 있다. LCME 지표들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지표들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LCME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LCME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 내용, 교육 환경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고, 이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또한 무엇을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길 바라는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학생들의 성취도 및 발달 사항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능력 중심 평가는 이미 의과대학 학생

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틀로 자리 잡았지만,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전문성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능력은 장기간에 걸쳐 발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 발달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배우는 여러 과목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등 새로운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나 전자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서면 평가에 비해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기록하고 그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은 앞으로 학생 평가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현재 그 활용 방안을 놓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전공의들은 의과대학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LCME의 기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의과대학, 병원들도 이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평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열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넷째,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서비스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장을 넓히고, 자신들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의과대학들은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재정적·사회적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의사로

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외에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질'을 개발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 과정 중 받는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습득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LCME에 따르 질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먼,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직업적 자정기적으로 교육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교육을 제공하고, 의사가 가져야 할 직업전문성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여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학교육이 의사로서의 진정한 직업전문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